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2025년 4월 23일(수) 제 3082호

## 교육감 후보군 난립 속 행사 참여 엇갈린 행보

### 정읍포럼행사 제각각 7~8명 후보자 난립 간담회참여등준비활발

현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 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실시되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에 7~8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난립 양상으로 그 어느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제2차 전북교육포럼에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유력 주자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날 포럼은 전북교육 미래와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의 발전 방향' 대주제로 진행됐다.

포럼 주최는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 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인포커스가 주관했다.

김인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 개회사로 시작해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전북교육감 후보 세마평에 오른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현 서거석 전북교육감 축사는 없었고 차기 교육감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이남호 전북교육원장 등도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교육 관계자는 "포럼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정치계 사람들이었다"며 "이번 행사는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렇게 정책을 바꿀 것이다'를 발표하는 자리로 보였다"고 전했다.

전북 교육계 전문가는 "이날 천호성 교수와 노병섭 대표, 이남호 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도내 교육 간담회나 포럼에 참여해 교육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대선 공약 확정

D-41 6.3 대선

### 남원 설립 가능성 간접 언급 민주당 당론 공약으로 연결 법안심사 소위 계류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경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이같은 공약 내용을 밝혔다.

물론 공약 내용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공공의대설립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약은 사실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후보는 "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료 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과 남원 지방의원과 남원시민들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심사를 요구했었다.

/서울=김영묵 기자

**보리병행충 방제** 전북농업기술원은 맥류 출수기(이삭 패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주요 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출수기부터 개화기까지 기온 상승과 간헐적인 강수가 이어질 경우 병해 발생에 유리한 고온다습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전북농업기술원 제공>

## 무주 두길교회 구(舊) 예배당 전북 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 한옥 지붕, 남녀 출입 구분 타지역 없는 건축 희소성

'무주 두길교회 구(舊) 예배당'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됐다.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1954년 김성녀 집사가 희사한 두길마을 중앙의 100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20평 규모의 5량 집 형태의 전통 한옥 지붕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이 직접 나무를 깎고 흙벽을 바르고 지붕을 이어 지었다고 전해진다.

장방형의 예배당 정면에 자리한 현관 '포치(Porch)'는 건물에 잇달아 지붕을 대어 지어진 출입구(좌우 구분)로,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의 출입문을 구분했던 관습이 건축물에 반영돼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지역 예배당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적 특징으로 한국 교회 예배당 건축의 변천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하두길에 위치한 두길교회는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건립된 곳으로 12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무주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최근까지 두길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됐다.

/무주=최의호 기자

## 민주당 "추경 증액·지역화폐 예산 반영해야"

### "늦장 추경, 신속 심사할 것" 지역화폐 등 증액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과 관련,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는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추경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너무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민생 경제를 들어 증액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최소 15조원은 돼야 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채권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道, 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계약 3,278만불 기염

### 도내 기업 15개사 참가
### K-푸드·K-뷰티·재생에너지 주력분야 수출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수출계약 3,278만불을 달성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식품·뷰티·건설 등 도내 기업 15개사가 참가했다.

이날 다양한 분야 해외 바이어들과 4,200만불의 수출 상담도 이뤄졌다.

성과 달성을 위해 '도·경제통상진흥원'은 대회 참여 2개월 전부터 유력바이어를 적극 발굴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온라인 마케팅 통한 노력속에 계약까지 이끌게 됐다.

친환경 플랜트 전문기업 A사는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을 앞세워 '미국, 뉴질랜드 바이어'와 총 3,035만불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최종 계약 위한 기술 협의와 인증 절차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 생강진액을 생산하는 B사는 지난해 22차 대회를 계기로 첫 수출을 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200만 달러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해외 진출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LA 지역 한인 바이어와 작년 대회에서 맺은 인연을 1년 넘게 이어온 결과 올해 신규 계약으로 이어졌다.

B사 대표는 "단기 성과보다는 바이어와의 장기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이외 화장품 기업 C사는 30만불 계약 성과를 올리며 美 애틀랜타에 위치한 편집샵 입점에 성공했다.

커피젤리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D사는 대회 첫날 제품 판매가 완료되며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는 이번 제23차 대회에서 적극 참여해 도내 수출기업을 알리고 해외 기업인 및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수출계약 3,278만불을 달성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미 관세인상과 환율 변동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3,817억원 규모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심사

### 제418회 임시회 오늘 개회
### 5월 7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약 3817억 규모의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41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각종 의안 및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전북자치도청(약 2,311억원)과 전북자치도교육청(약 1,506억원)의 총 3,8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회기는 '25년도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 이성국 전주시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대표 발의

이성국 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스텝스톤 그룹, 전주사무소 개소

### 국민연금 파트너십 강화
### 전주 금융 부문 성장 지원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에서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스텝스톤 그룹(StepStone Group)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스텝스톤 그룹은 지난 2014년 서울법인 및 서울사무소를 설립한 데 이어 11년 만에 한국에 두 번째 사무소를 보유하게 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만성동에서 열린 스텝스톤 그룹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텝스톤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스캇 하트(Scott Hart)와 부동산 부문 대표인 제프리 길러(Jeffrey Giller), 사모대출 부문 대표인 마르셀 쉰들러(Marcel Schindler) 등이 참석했다.

스텝스톤 그룹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주 금융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텝스톤 그룹(StepStone Group)은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라호야(La Jolla)에 설립된 세계적인 대체투자운용사로서, 앞으로 전주 연락사무소를 통해 투자 자문 및 자본시장 조사·분석 등 국민연금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약 50개 기관으로부터 약 60억 달러(USD)에 달하는 자산을 투자받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스텝스톤 그룹은 2024년 말 기준 16개 국가에서 1,090여 명의 전문인력이 기업 투자,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 등 모든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해 총 6,980억 달러(USD) 규모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국민연금 대체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도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연락사무소 개소로 스텝스톤 그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스텝스톤 그룹과 10년에 가까운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전주 지역 사회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소방,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정예 인재 선발

### 화재·구조·구급 등 참가
### 김제·진안소방서 전북대표
### 전국대회 출전권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 '2025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경연대회는 화재전술, 구조전술, 구급술기 등 총 5개 분야의 실제 현장 조건 속에 진행됐다.

경연대회 통해 화재전술 6팀, 구조전술 4팀, 구급술기 13명, 최강소방관 11명, 화재조사 9팀이 참가해 전술 기량 등이 겨뤄졌다.

각 분야 최고 소방 기술 인재를 선발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소방의 실전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화재전술 분야는 김제소방서가, 구조전술과 화재조사 분야는 진안소방서가 각각 1위를 차지해 전국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구급 팀 전술 부문은 군산소방서 소속 팀장를 중심으로 4개 소방서로 구성된 연합팀이 도 대표로 출전한다.

개인종목으로는 높은체력과 인명구조능력을 가리는 최강소방관 분야에서 부안소방서 박헌빈 소방교 등 3명이, 환자소생을 위한 전문 응급처치 개인술기 부문은 남원소방서 김혜훈 소방장 등 3명이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무대에서 실력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직능단체 연석 정책간담회

### 문화·농어촌 분야 등
### 현장 소통·실질적 협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전북국악단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의료기사연합회와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국악단체 간담회에서 유영대 원장 등 참석자들은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확충 및 정원 관련 조례 개정, 전주 대사습놀이와 전국고수대회 등 전통문화 축제에 대한 관심 및 예산 확대, 판소리·창극 전용 극장 건립을 요청했다.

오후 2시에 진행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 간담회에서 용화숙 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립공원 내 캠핑장 시설 확대 제한과 함께 전북 내 민박시설 지원 예산의 증액과 사용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관련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겠으며, 민박 예산 증액을 위해 필요한 협회의 구체적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30분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재배 회장 등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허용,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및 공공기관 구매 확대, 입찰 가점 부여와 정기적 소통 확대를 요청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복원과 관련 조례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7시 전북의료기사연합회 간담회에서 장도영 회장 등 참석자들은 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관련 행정공문 발송을 요청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담당자와 협력해 공문 발송과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전국 최초 수소시내버스 안전 표준화

### 운수업체·현대차·비전대 교통안전공단 협력 구축 안전관리 전 주기 체계화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45%인 178대가 수소버스다.

전주시는 22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행정과 수소시내버스 제작사와 운영사, 교육기관,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수소시내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버스 폭발 사고와 수소충전소 화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전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전주시내버스를 전면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확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약이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사의 정비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 등 수소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운영을 주도한다.

시내버스 운수사는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운수사 정비인력에 대한 집체교육과 정기·특별점검 참여를 통해 수소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운전 및 정비인력의 실무교육과 'RISE 사업'을 통해 버스 운전 및 정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전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점검 매뉴얼 검수와 더불어 정기·특별점검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주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린대로 BRT 구축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와 연계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으뜸봉사자 6명 시상

### 시민 5명·1개 단체 전주시장 표창 수여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2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일반인 3명과 청소년 2명 등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4만여 명의 전주시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횟수 △봉사 시간 △참여 연수 등의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돌봄센터에서 꾸준하게 아동 관리 및 초등학습지도 봉사를 해온 최승헌 씨(25세, 남)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목 관련 학습지도 봉사를 해온 정송희 씨(20세, 여) 등 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등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온 이민규 군(18세, 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습지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보조 봉사활동을 실시해 온 양윤영 양(16세, 여) 등 2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특히 정성평가 일반인 부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꾸준히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 활동에 임해온 NGUYEN THANH LOI(응웬 탄 러이)씨(27세, 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성평가 단체부문에서는 전주시여성예비군소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전주시여성예비군소대는 올해 1분기 최고 실적 소규모 봉사단체로, 재난 구호와 군장병을 위한 음식 나눔, 이·미용봉사, 환경정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종목단체 대표 대상 하계올림픽 유치전

### 우범기 시장, 배드민턴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 체육계 주요 인사 지지 요청

전북자치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날 참석한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북대병원·예수병원 퇴원 암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예수병원(원장 신충식)과 퇴원 암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병원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예수병원은 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 건강 회복과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암환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 연계 협업을 체결했다.

또 지역보건의료 돌봄 체계를 강화해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은 퇴원 예정 암환자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을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연계해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의뢰받은 환자에게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환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양종철 병원장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기관이 힘을 모으는 것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쿨 서비스' 본격 가동

### 그늘막 21개·살수차 6대 투입 폭염 대응 조기 계획 수립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시민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쿨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이례적인 고온현상과 국지성 폭염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폭염 대응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폭염 예방 및 대응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무더위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공간을 중심으로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195개 그늘막 외에도 17개 지역에 21개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한낮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더위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원순환실천 챌린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1일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지구의 날 기념 자원순환실천 챌린지'를 진행했다.

자원순환 확산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기획된 챌린지는 '폐소형 가전과 플라스틱 장난감 전달식'으로 열렸다.

전기안전공사 본사 직원들은 2주 동안 기부품을 모아 전주새활용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은 물품은 사무용 프린터기를 포함한 다양한 폐소형가전 171.2kg에 달한다.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약 446kg의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기부된 폐소형가전은 전문업체를 통해 자원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또 천연자원 채굴을 줄이고 폐기물 소각·매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경감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전주새활용센터 기획 전시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장난감의 역습'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해, 일상 속 자원순환 중요성을 관람객·이용객에게 자연스레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합력해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복지재단, 저장강박가구 보금자리 마련

### 비둘기 서식지 비위생적 방치 주방 등 생활환경 개선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위기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비위생적으로 방치된 저장강박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을 겪은 부녀가구로,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 거주 공간은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또, 지난 2년 동안 비둘기 서식지로 전락한 주방은 조류 배설물과 깃털로 뒤덮여 원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심각한 오염 상태였다.

이에 전주복지재단은 복합적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관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청소위생과, 전문청소업체, 관리사무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5일부터 4일간 △폐기물 7톤 분량 반출·수거 △전문업체 소독·방역 △청소 및 위생 회복 △주방설비 교체 설치 등을 실시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위기고립가구 지원에서 다차원적 접근과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취약 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모델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북경찰청,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대테러 훈련'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2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대비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대테러 합동훈련에는 경찰·국정원·군·소방 등 9개 관계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경찰·국정원·군·소방 등 9개 관계기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련은 오는 30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대테러 상황을 대비한 일환이다.

이날 장갑차, 폭발물처리로봇, 안티드론건 등 30여 대 특수장비가 동원되고 3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최근 테러 동향에 맞춰 불법드론, 인질테러 등 각종 테러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성공적인 전주국제영화제로 이끌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며 "더욱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새만금청, 글로벌 식품허브 밑그림 설계

## '새만금 식품원정대' 구성 (주)하림 현장 견학 참여 HMR 식품 트렌드 이해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새만금 식품원정대를 구성하고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림을 찾았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림을 찾았다.

22일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에 관심 있는 청 직원과 관계자 대상으로 '새만금 식품원정대'를 구성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견학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미래 비전과 식품산업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토대로 업무 능력을 높였다.

㈜하림은 국내 대표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가정용 간편식(HMR)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으로 익산 제4산단에 있다.

HMR(Home Meal Replacement)란 별도 조리 과정 없이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 포장한 완전, 반조리 형태 제품.

하림산업에서는 장인 신념과 열정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드는 퍼스트 키친(First Kitchen)을 살펴보는 '하림키친 로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는 새만금에서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1차) 및 다양한 형태의 제조·가공(2차)과 체험·관광·치유산업(3차)의 융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 식품원정대는 하림에서 추진 중인 투어프로그램과 중간 유통과정 없이 신선한 식품을 가정에 배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 견학을 통해 글로벌 식품허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인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종합식품기업으로 나아가는 하림의 사업 추진방향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분야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박춘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2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LX공사>

# 박춘수 LX전북본부장, 인구문제 캠페인

## 인구감소 대응 관심 촉구

박춘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2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방식은 캠페인 슬로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본부장은 한국전력공사 연원섭 전북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했다. 박 본부장은 다음주자로는 정하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처장과 수협은행 이정운 전북금융본부장을 추천했다.

박춘수 본부장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문제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제이며 대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 우수 기술력 잠재 지역기업 고도화

## '잠재기업 지원' 참여사 모집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프로그램 패키지 선택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재)전북테크노파크가 '2025년 전북 잠재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5년 전북 잠재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기술역량을 갖춘 주력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주축산업(농생명바이오,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과 연계된 기업 총 37개 내외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인증 취득, 마케팅, 공정개선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잠재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잠재초기기업'(창업 후 만 1~7년, 24년도 결산 기준 매출 1~50억)과 '예비선도기업'(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년평균 매출액 50~400억)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기업은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R&D 패키지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잠재초기기업은 24개사 내외로 최대 2천만원, 예비선도기업은 13개사 내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신화철강'은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을 통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연계 기반을 마련한 바도 있다. 또 다른 참여기업 '㈜아이팝'은 시제품 제작을 계기로 매출과 고용의 증가 및 수출 실적과 함께 국내외 기술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자사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패키지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RMS(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관리시스템 smtech.go.kr/region/rms)을 통해 지난 17일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술 기반의 자율 성장환경 및 주력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 한우 번식 향상 공동연구 착수

## 2027년까지 성과 도출 사료로 한우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세계적 사료 전문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한우 번식 효율 향상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두 기관은 2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기업으로 국내 6개, 해외 5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두가관은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 영양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영양과 번식 효율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연구를 통해 번식우 급여 사료 영양성분 분석, 영양수준 변화 따른 임신율, 혈중 대사물질과 번식 효율 간의 상관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번식우 급여사료의 영양수준 및 혈중 대사물질 수준 구축과 분석을 담당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성분 분석 및 영양 수준별 효과를 평가한다.

두 기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한우 번식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8기 교육생 모집

## 예비청년농 전액 국비교육 20개월간 입문부터 경영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선도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생을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선도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생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운영 품목은 딸기·토마토·오이·엽채소이며 총 52명 선발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지역·전공에 관계없이 18세 부터 39세 이하(1985~2007년 출생자)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14시 전북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김제시 백구면)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합격자가 발표 된다.

교육과정은 3단계로, 1단계 입문교육(2개월, 180시간)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이론교육(경영관리, 시설관리, 작물생리, 품목재배).

2단계 교육형실습(6개월, 480시간)은 전문가 지도하에 종자 파종부터 수확까지 실습과정 진행.

3단계 경영형실습(12개월, 960시간)은 교육생 주도하에 스마트팜 1년간 직접 경영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전액 국비(무료)로 지원되며, 교육단계별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교육생 실습비(숙·식비)를 지원한다. 또 경영형실습 단계에는 영농재료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자격,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융자) 신청자격,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후계농 선발시 가점 등 특전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호남지방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고용지표 생성 전수조사 인터넷·면접 병행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22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호남·제주 지역 4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인터넷조사(4.20.~4.28.)와 면접조사(4.22.~5.7.)로 이뤄진다.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8월, 취업자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 고용 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업·식품산업' 상생협력 강화

## 농업-기업 Kick-off 회의 연계협력방안 논의

22일 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Kick-off 회의'를 열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2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5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 바이오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추진 안내 △전북생생장터 입점 관련 안내 △지역과 기업의 상생방안 전문가 특강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비 회계관리 안내 △농업과 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특강은 삼농연구소 이승형 소장과 동명회계법인 박상민 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생방안들이 제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농업과 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농협 문학지점사무소 완산구 홍산로 이전

전주농협 (조합장 임인규)은 문학지점(지점장 소유선)을 지난 18일 완산구 홍산로373으로 사무소를 이전해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점식에는 임인규 조합장, 농협은행 전주시지부 하양진 지부장, 임·직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새롭게 이전한 문학지점은 금융 시스템과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문학지점의 이전은 공간 변화를 넘어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진학지도도 데이터로 설계한다

## 맞춤형 대입 상담 시스템 도내 133개 고교 배포

2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조장익 교사(전주고등학교)가 자체 개발한 '진로진학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 맞춤형 대입 상담을 위한 진로진학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교육청은 급변하는 대입 제도와 다양해진 대입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하 전북 대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대입지원 프로그램은 진학지도 정교화와 학교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돼 올해 2월 도내 133개 고등학교에 배포됐다.

이 프로그램은 단위 학교에서 재학생의 진학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학기별·교과별 내신 등급 △교과 이수 현황 △과목 조합별 평균등급 등을 비교·조회·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졸업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생의 학업 준비도 및 과목 선택을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진학 및 학업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못하는 과목 이수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 통계와 보완적 관계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도구로 평가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작동하고 졸업생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고유번호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진학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딤돌로 이 프로그램이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학교에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서거석 교육감 "학력신장 중간점검 필요"

## "연말 결실 위해 점검" 당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1일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학력신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지난달 경영계획 발표 때 올해를 '결실의 해'로 정했는데, 연말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래학교, 중점학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 어떤 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전문직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위촉에서부터 출제,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말고 보안에도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살리는 데 전력을 쏟아부어도 부족한데 최근 불거진 황당한 일에 소모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저는 여러분의 선봉에 서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전북교육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도청 컬링팀, 한국 첫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우승

## 결승서 독일에 8대2 승 "선수의 노력·도의 응원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여자컬링팀이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2025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독일을 8대 2로 꺾고,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첫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여자컬링팀은 예선부터 눈부신 경기력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정교한 샷과 침착한 전략 운영으로 예선과 토너먼트를 거치며 준결승에서 스웨덴과 치열한 접전 끝에 7:6으로 승리하여 결승에 올랐으며,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상대로 완승했다.

이 승리는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최초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세계무대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던 한국 주니어 컬링은 이번 우승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선수단에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전하며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 만든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체육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군산교육청, 초등 지역 연계 예술체험 프로그램 지원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2025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과학 공연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 지역의 예술 전문 기관 및 예술인을 학교 현장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공연(음악, 마술 등)과 체험형 수업(미술, 공예 등)을 통해 학년별 수준에 맞춘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문화예술처를 공모·선정하고,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조율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해당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참여학교는 활동 후 결과 보고를 통해 교육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2024년 연차 평가 'A 등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A)' 등급을 획득하며 탁월한 창업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창업중심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실적, 성과, 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전북대는 호남권역 창업지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에 선정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2년 전북·전남·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을 중심으로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우수평가를 통해 향후 2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됐다.

2024년도 연차평가에서 전북대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실적 △창업기업의 매출 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 △전담 인력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성민 기자

# 전주시립합창단, '뻔한 음악학교 합창5교시' 공연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철)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뻔(Fun)한 음악학교 합창5교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현직 교사인 송성근 교사(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가 초청돼 전주시립합창단 최현욱 부지휘자와 함께 아이들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1교시~5교시'로 나눠 무대를 연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된다.

/정재근 기자

## 정읍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공시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유호연 부시장)'를 개최하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32만 7165필지와 개별주택 2만 5202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1.78%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정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오는 30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터넷,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조정·공시는 6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 전국 최초 비응항에 화재대응 소화탄 설치

화재에 취약한 항·포구 어선을 대상으로 군산 해경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정박어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계류시설 진입로 인근에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재선박은 구조와 진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 대다수 어선의 경우 불이 쉽게 붓고 잘 꺼지지 않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선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은 화재선박에서 초동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군산시 비응항에 소화물품 보관함을 지난 21일 설치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보관함은 분말소화기 1대와 투척용 소화탄(Fire Ball) 6개가 구비되어 있다. 화재를 발견한 누구든지 선박에 던져 피해를 초기대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던져진 소화탄은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폭발하면서 주변에 소화액을 뿌려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봄날 달콤한 유혹 익산 '수박 축제'로 먼저 만난다

익산시는 '제4회 수박놀이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용안면 용머리고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산지에서 수확해 신선한 고당도의 수박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애플수박 모종심기 △수박 화채 만들기 △수박 화장수 만들기 △승마 등 각종 체험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수박 조각 전시와 수박 품평회, 시립예술단의 풍물과 무용, 난타 공연까지 더해져 문화적 볼거리도 풍성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배달의 명수'로 지역경제 살린다

### 간담회·설문조사 실시 소비자 혜택 확대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배달 시장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14일부터 포장 중개 수수료 6.8%까지 부과해 자영업자들은 강한 반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의 명수'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지난 7일과 17일 2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 배달앱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주요 쟁점은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 무료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점주 처우 개선에만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시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수료를 일부라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의 지적을 취한 결과이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배달의 명수'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배달의 명수'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는 이야기다.

'배달의 명수' 운영사 역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 홍보에 임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 21일~내달 22일까지 공모 최대5년간 1억 1천만규모 지원

정읍시가 관광두레 신규 지역 선정 이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분야 주민사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관광체험과 식음, 여행, 숙박,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3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정읍시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대 5년간 최대 1억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전문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3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사업체는 정읍시 관광두레 PD와 협의 후, 5월 22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발로 뛴다!

### 김 부시장 행안부·해수부 등 방문

군산시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전략적 협의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이달을 '부처 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전 부서가 중앙부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시작으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22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득전에 나섰다.

김영민 부시장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면서 부처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부시장 방문에는 사업별 구성된 설명자료와 정책 배경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실무형 설득 전략이 집중적으로 동원됐다.

건의된 주요 사업은 총 7개로, 자연재해 예방부터 친환경 산업기반 구축, 수산업·농업 경쟁력 제고까지 군산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김 부시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태풍 피해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미룡지구·개야도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및 RE100 기반 산업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 에너지자립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가 이어졌다.

수산·농업 분야에선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전략 작물 사업다각화 지원 시범사업이 중심을 이뤘다.

김영민 부시장은 "지방정부가 국비를 따내는 일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느냐, 얼마나 진심을 담아 설득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전략적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중앙부처 방문에 앞서 '2026년 국가 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 '부처 단계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 발굴을 완료한 상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의 특별한 여행길, 4대 종교 성지를 걷다

### 28일~5월 9일까지 신청

성지를 따라 걸으며 쉼과 사색을 더하는 익산의 특별한 여행이 올봄 다시 시작된다.

익산시는 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2022년부터 운영한 '4대 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매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전작에 이어 더욱 풍성한 일정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5월과 6월에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5월은 23~24일, 30~31일에 참여할 수 있고 6월 일정은 6~7일, 13~14일이다.

참여자들은 익산역에서 출발해 △원불교 총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등 익산을 대표하는 4대 종교 성지를 순례한다. 아울러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 체험, 순례길 걷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4만원이다. 신청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www.iksan.go.kr/reserve/index.iksan)에서 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협약 체결

### 일자리 연계·고용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22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군산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고용센터(소장 주영일)·군산시(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사무국장 조윤정)·사단법인 한국커리어(본부장 고은하)까지 총 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관계 기관들은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 채용지원, 컨설팅 등의 통합 제공에 함께 협력하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2월 선정된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군산시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인력 배분 최적화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단은 군산시 일자리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제작과 입주(예정)기업의 숙련 수준별 인력 수요를 사전 진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체계적 고용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선정

### 창업 런케이션·청년 야시장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5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브랜더스(대표 편제현)의 '군산 창업 런케이션'과 유레카 군산 협동조합(대표 진영광)의 '군산 청년 야시장' 총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청년단체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아이템 발굴에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26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며, 단체당 연간 최대 4,750만 원(도비 50%, 시비 50%)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시·군의 20개 청년단체 중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선정된 12개 사업 중 군산시는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청년단체가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교육과 지역관광을 결합한 브랜더스의 '군산 창업 런케이션', 청년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감형 야시장 행사인 유레카 군산 협동조합의 '군산 청년 야시장' 사업이 있으며,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사업들로 청년들의 공감대 형성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청년이 그리는 익산, 제8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익산시가 청년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의 혁신을 이끌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22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8기 2030 정책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2030세대 공무원 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는 2030 정책기획단 단원과 각 분야 지원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영석 부시장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어 정책기획단 운영 방향 설명, 신규 정책 발굴 교육, 팀별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8기 정책기획단은 2030세대 젊은 공무원(멘티)과 4050세대 선배 공무원(멘토)이 함께 참여한다. 관광, 교육, 도시인프라, 보건·의료,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팀을 이뤄 신규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팀별 회의 △전문가 특강 및 컨설팅 △지원부서 컨설팅 등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오는 9월 진행될 최종발표회에서 최우수팀과 우수팀을 선정하고, 우수제안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벼 재배농가 대상 톤백 지원

정읍시가 벼농사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확기에 필요한 수매자재(톤백)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벼 수매자재(톤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수확 후 양곡의 보관·운반에 사용되는 톤백(800kg/1000kg)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만 1050장의 톤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00㎡ 이상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중소규모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2ha 이하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물량에 여유가 생기면 5ha 이하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당 지원 가능한 최대 수량은 20매다.

시 관계자는 "톤백은 공공비축미 출하 시 활용도가 높고 수확 작업의 효율성과 농작업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재 수급을 표준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하라"

## 김제시민, 10만인 서명부 해양수산부 15번째 지정 촉구

최근 새만금신항의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불거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군산시간 갈등 상황에 새만금신항의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22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약 1달간 김제시민과 각 시민단체, 관내 기업체 종사자, 출향인, 김제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의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명운동에 참여한 김제시민과 인근 지역민들은 확실한 지역발전 방안을 무시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채 편향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대해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시민은 "전국 14개 국가무역항 중 전남은 3개, 경상도는 4개 충남도 3개, 경기도 3개를 보유하면서 엄청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전북은 군산항 1개의 국가무역항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으로 1개의 국가무역항보다 2개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는 것이 지역 항만산업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연대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만금신항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당초계획을 초과한 총 11만 7,099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도약을 위해 새만금 국책사업을 시민중심의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부정책 결정과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시민연대 대표단과 함께 서명부 전달식에 참여한 이건식 前김제시장은 "새만금과 김제 발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김제 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만금신항의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이나영 한빛원전 감시센터 고창분소장 방사선 유출물 관련국제학술지 연구논문 등재

이나영 분소장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이나영 고창분소장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출판 세계 저명 SCIE 국제학술지인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4월호에 연구논문이 등재되며 방사선학 연구자로서의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연구 논문은 'Assess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rom radioactive effluents discharged by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한국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목이다.

10년(2014~2023년)간 한빛원전의 기체·액체 방사성유출물 배출특성분석, 유출물(성상별·핵종별)에 의한 주민피폭선량을 분석했다.

특히 연구를 통해 한빛원전 주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개선사항도 도출했다.

감시센터 고창분소는 한빛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의 방사선안전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이나영 분소장의 이번 국제 학술지 연구결과 게재는 감시센터의 대외인지도 향상 및 국제적 학문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감시센터는 "기존의 방사능분석 및 안전감시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철저한 발전소 안전감시의 능력을 배양함으로, 지역민을 위한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맥류 수출기 붉은곰팡이병 적기 방제 당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밀·보리 등 맥류의 출수기(이삭 패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붉은곰팡이병에 대한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이삭이 패기 시작해 여물기 전까지 3일 이상 비가 내리고 기온이 15~30℃, 상대습도 90% 이상인 조건에서 쉽게 발생한다. 감염 시 낟알이 갈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하얀 곰팡이가 퍼지면서 낟알 전체를 뒤덮게 된다. 이로 인해 수량과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독소(Mycotoxin)가 생성돼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출수기 무렵 붉은곰팡이병에 등록된 약제를 1차로 살포하고, 7~10일 후 2차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꽃이 지고 5일 이후 방제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사용시기, 희석배수 등 약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붉은곰팡이병은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동반하는 주요 병해라며, 밀·보리 재배 농가는 반드시 적기에 등록약제를 사용해 병해 방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하전 바지락 축제 내달 3일 열려

## 바지락 요리 런칭쇼 등 프로그램 추가‥3~5일 개최

고창군 하전 바지락 오감쳉럼 페스티벌이 오는 5월3~5일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고창군>

고창군 하전 바지락 축제(오감체험 페스티벌)가 내달 3~5일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하전어촌계가 주최하며, 작년에 비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조개캐기, 갯벌 체험과 바지락 무료나눔, 풍천장어 잡기 등 기존 인기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바지락 요리 런칭쇼 및 숏폼 콘테스트 신설=요리 전문가와 조리과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바지락 요리 런칭쇼'가 새롭게 선보인다.

△고바락 캐릭터 굿즈 출시 및 드레스코드 운영=특히 올해는 고창바지락 공식 캐릭터 '고바락'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강화된 갯벌퍼레이드와 다양한 체험=갯벌퍼레이드는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돼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권영주 하전어촌계장은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 올해 제8회 하전 바지락축제에서 고창의 자랑인 하전바지락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며 가정의 달을 특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스마트팜 농가 현장행정

김희옥 부시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2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한 농가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문한 청년창업농 박정윤 농가의 경우 시 보조사업인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통해 새만금 스타트업단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해,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을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랑영농법인 대표 허정수는"스마트 농업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농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스마트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개발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변산면 수성당, 들녘 유채꽃 만개 관광객 유혹

부안군 변산면 수성당에 봄의 물결 따라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탁 트인 들녘을 배경으로 펼쳐진 수성당 유채꽃밭은 바다, 하늘, 산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황홀경을 선사해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수성당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숨은 명소로 고즈넉한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로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아 왔다.

여기에 유채꽃이 더해지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수성당 유채꽃 개화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돼 오는 5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들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꽃밭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변산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 제품 결함 인정·유해 성분 정보 공개 촉구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담배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흡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과 석정웰파크요양병원(병원장 최종순)이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어르신 대상 치유문화와 웰다잉(품위사·品位死) 연계 협력사업 발굴, 초고령화 사회 대응 치유문화예술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해 이뤄졌다.

특히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석정웰파크요양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을 기반으로 어르신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노령인구와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종순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석정웰파크요양병원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고창의 치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백산면 지사협, 어르신 대상 반려 식물 만들기 사업 펼쳐

부안군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재원·공공위원장 신형아)는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반려 식물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반려 식물을 함께 만들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 위원들은 사회적 고립 가구와 1대 1 결연을 맺어 고독사 예방 및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월 1회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재원 민간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심리적 위안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 지평선농부들,마을기업 道 고도화사업 선정

## 사업비 5천만원 확보 수출용포장재개발등 경쟁력향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에 마을기업인 '지평선농부들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은 홍보·마케팅, 신규 제품 개발, 품질개선 지원, 상표 및 특허 출원 등 경쟁력강화와 신규 시설·장비 구입 등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쟁력강화 유형은 최대 3천만원, 인프라 유형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평선농부들(영)은 김제시 금구면 주민들이 재배한 생강을 구입·가공해 생강진액으로 제조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하는 등 김제 생강을 알리고 공동체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와 동시에 수원 메가쇼 등 식품 박람회등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지평선농부들(영)은 해외수출용 포장재 개발과 자동 생산기계 구축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이 다양한 판로 개척과 최신 시설 구축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돌발해충·과수탄저병 방제 약제 지원

고창군이 김장채소와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무·배추 뿌리혹병, 돌발해충, 과수 탄저병 방제용 약제를 관내 농가에 공급하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3월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는 515농가, 713ha, 돌발해충 방제는 203농가, 154ha, 과수탄저병 방제는 119농가, 110ha를 대상으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남원 소리판, 도시브랜드로 재생

## 행안부 '로컬브랜딩' 선정 옛 소금창고 공연장 조성 '남원풍류' 콘텐츠 제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소리판으로 재생하는 남원풍류'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시민이 살고 싶고 외지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생활권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로컬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아카이브 '남원다움'을 중심으로 민간 예술가 및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함께 워크숍과 연구회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과 고유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리문화 콘텐츠 '남원풍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남원다움관 일원으로, 남원시는 이 일대에 위치한 옛 소금창고를 리모델링해 전통과 남원의 고유한 소리, 즉 판소리 및 삶의 소리, 자연의 소리 등 로컬의 소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리 스튜디오 및 블랙박스형 공연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 민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생력 있는 콘텐츠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는 판소리, 민간 소리, 자연 소리 등 남원 고유의 소리 자산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남원풍류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 및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18여 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 채계산 유채꽃 축제, 이번 주말 개막

## 출렁다리 길목 유채꽃 물결 걷기 대회·가요제 등 다양

순창군 적성면에서 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제3회 순창 채계산 유채꽃 축제'가 이번 주말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노란 유채꽃 물결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채계산 출렁다리는 순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노란 유채꽃 물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이곳의 자연 풍경은 물론, 순창의 전통 문화와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적성슬로공동체위원회(위원장 양병용)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건강한 농촌음식과 자연속 휴식을 주제로 개최되며, 첫날인 2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과 지역 농가에서 준비한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농가밥상 시식체험, 그리고 오후에는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섬진강슬로슬로 걷기 대회'가 열려 섬진강 구남마을 구간을 왕복하는 5km 코스를 함께 걷는 시간을 함께, 오후에는 '제1회 순창 채계산 유채꽃 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동안 상설 체험 행사로 친환경 공예, 캘리그라피, 전래놀이, 자전거 타기, 카누 체험(예약제) 등이 운영된다.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도 함께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예비 춘향들과 춘향제 전방위 홍보

## 춘향대회 본선진출 38명 축구장서 축제 방문 독려

지난 20일 『제95회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8명과 남원시 직원들이 함께 축구장을 찾아 입장객들에게 춘향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남원시>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발로 뛰는 현장 방문 등 차별화된 이색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제95회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8명과 남원시 직원들이 함께 축구장을 찾아 입장객들에게 춘향제 홍보 및 축제 방문을 독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남원춘향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전광판, 전주 택시 랩핑광고, 소주병(참이슬) 라벨, 농협 ATM 기기 등을 활용해 춘향제 축제 정보를 노출하는 등 그야말로 홍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 및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춘향제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홍보 매체 활용과 더불어 외국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이전보다 홍보 단위를 넓히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공식 소통창구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춘향제 관련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홍보 확산을 위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현재 유튜브(남원시 TV)와 인스타그램(goodnamwon)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추후 축제 기간에도 새로운 관광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 '미션 투어'와 같은 현장 방문 이벤트를 비롯해 온라인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춘향제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전광판 설치

##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환경행정 신뢰 높인다

완주군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질오염 원격 감시시스템(TMS) 전광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입구에 설치 완료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질오염 원격 감시시스템(TMS) 전광판을 삼례읍 공공폐수처리시설 입구에 설치 완료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해왔던 전광판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TMS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TMS 장비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근무자도 출입이 불가하며, 유지관리 권리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TMS 전광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항목별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다.

TMS 수질측정 항목은 PH(산성도), SS(부유물질),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로 총 5개 항목이다. 수치가 상승할 경우 경고는 분홍색, 초과는 노랑색으로 표시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과 남원시가 김제시와 함께 전북에서 문광부 주관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완주군/남원시>

# 완주군 '4색 자전거 여행길' 열린다

## '자전거여행 활성화' 선정 4개 코스 폭넓은 콘텐츠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속가능한 여행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8곳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남원, 김제와 함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완주를 흐르다 – Ride the River, 완주' 라는 프로젝트로 만경강과 비비정을 중심으로 삼례, 소양, 고산, 동상 4개 권역을 연결하는 테마형 자전거 코스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삼례역과 만경강 자전거길, 에코레일 연계 등 기존 교통·생태 자원을 활용해 접근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군은 '쉬어가삼례' 거점 공간에 공유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여행객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쉼터와 편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봉동 노포 국수 맛집 탐방, 황톳길 체험, 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 체험 등 4가지 라이딩 코스를 난이도별로 구성해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전거 코스는 경로마다 로컬푸드, 전통시장, 관광명소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흐르듯 천천히 완주를 여행하는'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 미션북, 코스 완주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함께 전개한다.

군은 그동안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공공보험 도입, 자전거도로 확충 등 기반 마련에 꾸준히 투자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극대화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대표 관광지, 자전거로 잇다

## 친환경 레저관광 모델 추진 라이딩 대회, 해설사 양성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총 8개 시군이 선정됐었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2024년 자전거 여행 60선에 선정돼 총 40km로 이루어진 요천 100리 숲길과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해 친환경 레저관광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 고유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용열차(에코레일)와 연계한 여행상품, 자전거 스탬프 투어, 전국 라이딩 대회, 안전한 자전거 여행 문화를 만들어줄 안전지도사 및 해설사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레저 관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동호회 및 여행업계와 협력해 자전거를 매개로 한 참여형 레저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관광 수요층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재정집행 평가 도내 1위 달성

## 1분기 신속집행 '최우수' 인센티브 2.5억원 확보

남원시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5,021억원 중 1,820억원을 집행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인 1,536억원보다 284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대상액 대비 집행률 36.2%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목표액 901억원 대비 98억원 초과 달성한 999억원(110.8%)을 집행하며, 높은 집행률을 보여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그동안 꾸준한 집행상황 일일보고와 매주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집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순창군이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절단 진단비 등 총 14종에 이르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나 팩스(070-4758-8556) 또는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 산내면 반선마을 장기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 '해결 실마리'

남원시는 지리산 뱀사골 산내면 반선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던 오랜 집단민원과 관련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는 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최경식 남원시장, 신청인 대표 양동원 씨,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및 물통합관리과,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반선마을 주민들이 겪어온 국립공원 제외에 따른 여러 생계 어려움, 마을 주변 캠핑카 장기 차박문제 문제 해결 등 총 3건의 민원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통합 조정서에 최종 합의하고 상호 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적극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반선마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국립공원, 특히 뱀사골 계곡으로 들어서는 핵심 관문으로, 매년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주요 관광 거점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간 국립공원 제외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시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반선마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리산 관문 마을로서의 위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장애인의 날 행사 성료 공연·표창·장기자랑 화합의 장

순창군은 22일 장애인체육관에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순창군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장애인후원회, 한국부인회 순창지회, 대한적십자사 순창군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봄날의 온기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색소폰 연주로 막을 열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어진 공식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표창, 감사패 전달, 기념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순창군수상, 군의회의장상, 교육지원청장상, 경찰서장상, 도의원상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총 9명의 모범 장애인이 표창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2부 어울한마당에서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며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헌 기자

## 완주군 매니페스토 정책 특강 민선8기 공약 이행 역량 강화

완주군이 22일 공약 담당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실천 방안 모색과 함께 공약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재난 △도시 불평등 △기후 위기 등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의 역사 및 공약 관리 이행방안 등을 제언했다.

민선 8기 완주군은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4대 분야 112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65.2%의 공약 이행률을 이행하고 있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장수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

장수군은 22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5년 1분기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2명(최우수 1명, 우수 1명)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건설교통과 김종인 주무관, 우수 공무원으로는 환경과 최승원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부상으로 장수사랑 상품권이 지급됐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했을 때 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산점을 포함해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수군은 분기별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업무 절차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원인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응대하는 공무원이 곧 군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본격화

진안군이 중소농 중심의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나섰다.

사업 대상은 성수면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 중인 청년농업인으로, 체험형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두드림 딸기 농장'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중소농 중심의 농업경영체의 비용절감, 품질개선, 가치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드림 딸기 농장'은 마이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장 브랜드 개발, 체험 교육장 환경 개선, 스마트팜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차산업형 농가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의 품질개선과 가치향상을 도모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주민 식습관 개선 찾아가는 영양 돌봄 추진

임실군이 영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과소화 마을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5년째 과소화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교육과 영양 도시락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6개소가 선정돼 저탄소 식생활 교육, 바른 걷기, 저탄소 밑반찬 제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8개월 동안 30회차에 걸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2월부터 청웅면 행촌마을을 시범 마을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실의료원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노인성 질환(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에너지 밸런스 측정, 스트레스 이완 등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한방 치료지원, 체중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정보를 파일로 제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개선을 돕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저탄소 식생활 교육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농촌 노인의 건강 증진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민 간 화합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 트레일러닝 기반 지역정착 청년 주도형 활력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청년 주도형 지역 활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마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조성 등 자율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장수군의 사업 수행 주체는 지역 청년 공동체 '장수러닝크루'를 기반으로 성장한 청년단체 '락앤런'이다.

락앤런은 러닝, 플로깅, 마을 달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청년 문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왔으며, 산악 트레일러닝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락앤런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아 '트레일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트레일 빌리지는 장수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악 지형을 기반으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를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및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 브랜딩을 이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트레일 빌리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장수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락앤런과 함께 트레일 빌리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년, 자연,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 구축에 힘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덕유산국립공원, 지역 관광 활성화

### 특화 관광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활동 공동 추진

무주군은 지난 22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안길선 덕유산국립공원 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덕유산국립공원은 △지역 관광지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위한 활동 장소 및 쉼터 지원 △공원 진입로 및 주변 환경 정리 △국립공원 생태 보전 활동 지원을 맡기도 했다.

무주군은 △지역사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지역관광지 특화 일자리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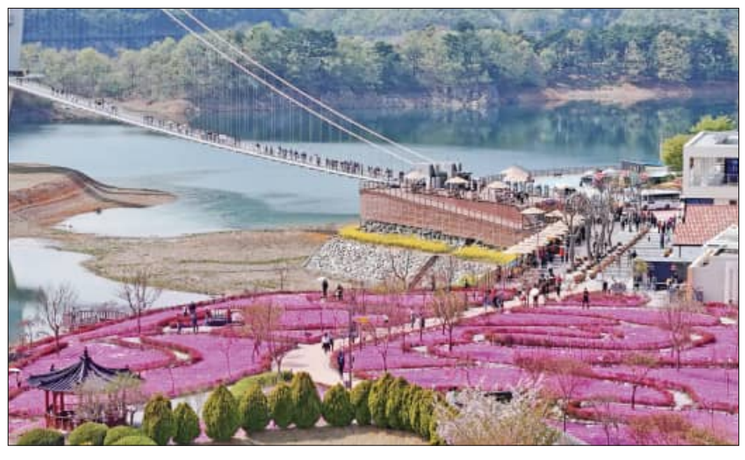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이 은퇴 세대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자원을 보호해 K-관광 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을 활성화하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주군 대표 명소와 행정이 뜻을 모은 만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의 자연 자원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덕유산국립공원은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해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매주 월요일도 개장

### 4~5월 중 휴장일 없이 운영 튤립 등 개화 관광객들 찬사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봄꽃들의 향연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에 찬사를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벚꽃들이 개화 절정이 지나고 봄바람과 함께 꽃잎이 날리는 낙화의 아름다운 장면에 더해 붕어섬 생태공원의 봄꽃 경관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4월~5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도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휴일 없이 임시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4월 중순이 지나면서 붕어섬 생태공원은 푸릇푸릇한 초록 잎들 사이로 꽃잔디들이 개화를 시작했고, 마치 꽃자주빛 카펫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 붕어섬 생태공원과 반대 방향으로 조성된 요산공원에도 약 4,000㎡ 면적의 화단에 꽃잔디가 식재돼 있다.

4월 꽃잔디의 풍성한 개화를 위해 올해 붕어섬 생태공원과 요산공원에 2만여본의 꽃잔디 보식 작업도 완료했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붕어섬 생태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더해 줄 꽃과 나무들을 식재해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 5일과 6일 옥정호 벚꽃축제에는 3만5천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치를 수 있었다"며 "보답하는 마음과 5월까지 아름다운 봄꽃들로 물든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5월까지는 휴장 없이 운영하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전략 논의

진안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2일 군청 강당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2026~2027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예산 확보 활동 현황을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각 사업 담당 팀장이 참석해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의 중점 투자 방향과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연초부터 진행된 부서별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17개 부서에서 49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군은 이들 사업을 실제 추진 가능성과 시기적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업 반영의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산암 정수장 정비사업(303억원) △월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70억원) △군상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49억원) 등이 포함됐다.

진안군은 향후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보완하고, 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부처 방문 및 협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의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특화 품목 전문가 육성 주력

### 사과등 5개분야팜메이트활동

무주군은 특화 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메이트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팜메이트는 농업 분야 지도·연구직 공무원과 농업인이 한 팀이 돼 활동하는 것으로, 12월까지 멘토·멘티 이론학습과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사과와 포도, 수박, 딸기, 토마토 분야 5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23명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농업기술 등을 상호 공유하며 소득향상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주력하게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팜메이트 과정은 농촌진흥청 주관 교육 등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현장 활동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라며 "활동을 통해 선후배 공무원들이 서로가 가진 강점들을 나누고 농가들과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팜메이트 참여 농가들은 "선택 품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 현장 경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울 점도 많고 도움도 많이 된다"라며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에 주력할 방침으로, △지도공무원 현장 시스템 강화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현장 지도'에 매진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4월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장정복 의원을 대표위원, 한국희 의원을 위원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김종철, 신봉수, 신인식, 정훈모, 최재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 25일간 장수군수가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장수군의회는 추후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위촉식에서 "군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 군의 재정이 더욱 건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토지 경계 분쟁 예방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임실군이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도곽 및 행정구역 간 개별지적 접합 오류 필지 등 경계 정비가 필요한 필지를 정밀하게 수정·보완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적도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불일치 지역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행복콜버스 시간연장 시범운영

### 저녁 시간대 교통편의 제공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임시연장

진안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저녁 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행복콜버스 운행 시간을 임시 연장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시범적으로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농어촌버스 운행을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행복콜버스는 현재 진안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후 6시로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저녁 시간에도 버스 운영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그에 반해 저녁 시간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진안군은 주민 편의를 우선에 두고, 시범운영 후 이용 현황에 따라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들이 야간 활동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지역도 활기를 띨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박경희 전주병원 고문, 2년 연속 정읍 고향사랑기부금

전주병원 박경희 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박경희 고문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정읍의 의료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 고문은 "올해에도 정읍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보건·복지 증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연합회, 공식 출범

### 전북연합회장에 이남표 총괄상임이사 채영병 위촉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GO등록(1486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연합회가 공식 출범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벽계가든에서 서울 본부 이남숙 대표와 남궁문선 상임이사겸 사무총장, 강기선 조직위원장, 채영병·장재희 전주시의원, 김용삼 완산구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북연합회장에 이남표씨가, 상임고문에 김종배·한일례씨, 총괄상임이사에 채영병씨, 부회장에 이광규·유미경씨, 분과별 팀장이사에 장재희, 임성진, 박덕귀, 태혜진씨 등이 위촉장을 받았다.

또 강신무씨와 권오순, 김갑성, 김경남, 김성배씨 등 25명에게 이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남숙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대표는 "봉사는 꼭 돈이 많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따듯한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의미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남표 전북연합회장은 "지난 2021년 겨울부터 순수한 마음에서 행정기관에 손을 내밀지 않고 봉사활동을 시작해 왔다"며 "정식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출범함으로써 이제 호수에서 돛단배가 노저어 가던 것이 이즈스함으로 출항할 수 있게 돼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원불교 남원지구, 남원시에 백미 10kg 190포 기부

원불교 남원지구는 지난 28일 원불교 열린 날을 기념하여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고 남원 참미 10kg 190포(500만원 상당)를 남원시에 기부했다.

원불교 남원지구는 매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남원시가족센터,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혜중원광어린이집, 원광지역아동센터 등 여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6월 1일까지 '마법미술관' 전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이 오는 6월 1일까지 기획전시 '마법미술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마법을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예술을 쉽게 접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 효과와 체험 요소를 통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대영 청원경찰, 군산경찰서장 표창 받아

### 전북 최초, '흉기소지죄' 적용

22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군산경찰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행정지원과 소속 김대영 청원경찰은 지난 1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지했다. 김대영 청원경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장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혐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직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완주군 사회복지 단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백청열),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유재현)가 지난 21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각 단체 회원들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이재민에게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과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대경종합건설, 무주군에 장학금 5백만 원 기탁

### "미래 인재 육성에 쓰고 싶다"

㈜대경종합건설이 22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하헌경 ㈜대경종합건설 대표는 "전북 무주를 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좋은 학습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정읍고창 도의원들, 산불 이재민에 성금 기탁

정읍고창 도의원 4명이 정읍시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임승식, 염영선, 김성수, 김만기 도의원은 지난 21일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성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정읍시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전북인공지능고 야구부 전달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고교 야구부 지원 사업 모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22일 고창 스포츠타운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구 영선고) 야구부의 낡은 훈련 장비 교체, 선수단 훈련 환경 개선, 동계 훈련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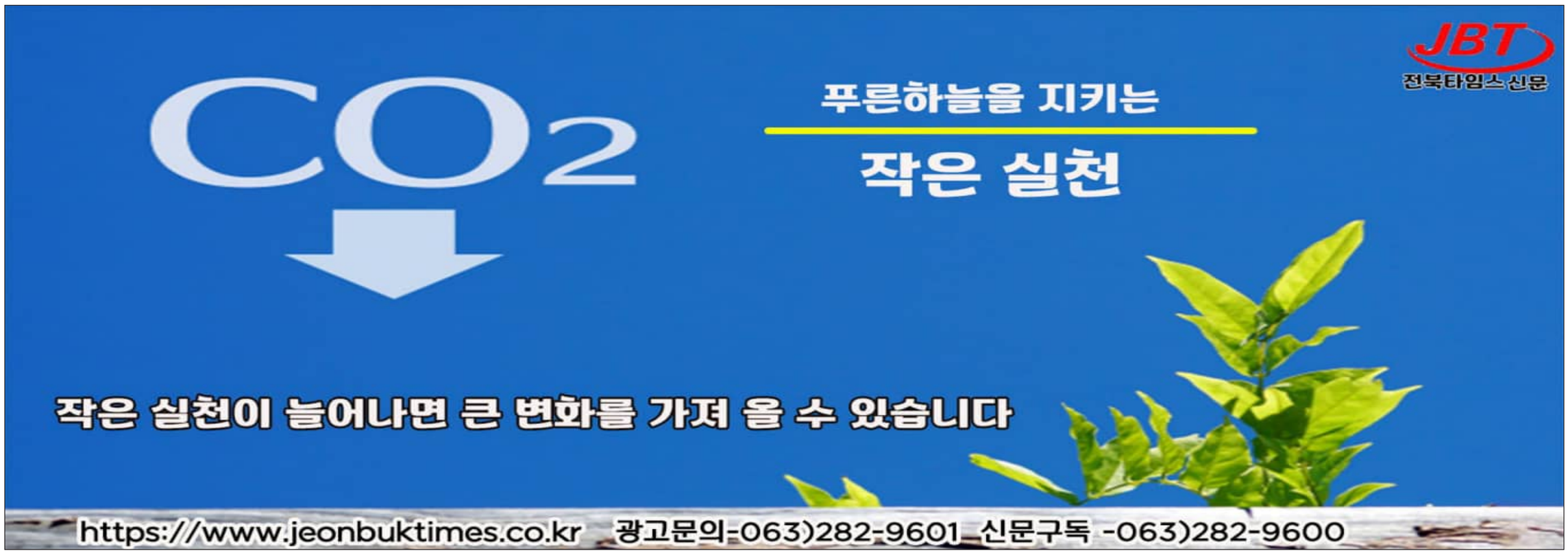
## 원광대병원·원누리후원회, 익산시에 백미 1,000kg 기탁

익산시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원누리후원회가 22일 익산행복나눔마켓 및 다이로움나눔곳간에 백미 1,000kg(3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원광대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익산행복나눔마켓에 비치돼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누리후원회 회장인 서일영 병원장은 "올해도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一事一言〉

## 내란만큼이나 무서운 7세 고시

강민정
전 국회의원

내란과 7세 고시를 비교하다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지난 2월 한 TV 프로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방송에서 확인된 소위 '7세 고시' 실태는 내란 진압으로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라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란만큼이나 충격적인 우리 사회 환부를 드러내 준 것이었다.

정말 내란'만큼'의 환부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7세 고시 현상은 너무 지독한 반 교육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민주주의 토대가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과 돌봄 대신 학대를 허용하는 것이며, 심신 건강한 시민의 성장을 방해해 반민주, 반헌법이 파고들 토양을 만들기 때문이다.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대상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47.6%다. 이것도 문제지만 주목할 점은 초등입학 직전 5세 사교육 참여율이 81.2%라는 사실이다. 영유아 사교육이 돌봄수요 해결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학교교육 대비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소위 인기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4세, 7세 아이들이 고시에 버금가는 시험을 치른다. A4 한 장을 가득 채운 지문을 읽고 답을 써야 하는 유아들을 상상해 보라.

10세 아이에게 총을 들려주고 군복무를 시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 13세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건 어떨까? 아마 누구도 그래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스를 때 아이도, 공동체도 모두 불행해진다. 사회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부모라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군과 경찰 같이 눈에 보이는 제도폭력만 있는 게 아니다. 열 살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은 반대하면서 네 살, 일곱 살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영어 지문을 던져주고 문제를 풀라 하는 것, 이것도 폭력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불안장애,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자존감 하락, 학습능력 저하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 지적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전쟁 같은 경쟁이 짓누르는 세상 탓이지 내 자식 잘 되라는 부모 탓인가.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세상을 바꿔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탓하며 어린아이들에게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전염성 높은 부모의 불안 바이러스를 지렛대 삼아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사교육업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약자인 어린아이들, 우리 사회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부모덕에 엘리트 코스 탑승에 성공한 자들이 번지르르한 대학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을 무기삼아 부와 권력은 거머쥐었으나 얼마나 무모한 반지성적 사고에 갇혀 있는지 이번 내란사태를 통해 생생하게 보지 않았나. 성적은 인성에 비례하지 않는다. 화려한 스펙과 지위가 민주시민성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을 담보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필두로 한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육사 전교 1등 노상원에게는 파면과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애착형성단계부터 연필쥐기 연습, 영어단어 배우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설사 입시와 취업에 성공해도 사고와 성격이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발달단계에 맞게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한 결과다. 반대로 그 트랙에 안정적으로 올라타지 못한 아이들은 낙오자 의식에 시달리며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때로는 공격성을 띤 사회불만 세력이 되기도 한다. 그 어느 쪽에도 존중과 공감, 연대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가 123일 동안 내란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을 모두 반납한 채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광장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란으로 헌법이 파괴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우리의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끔찍한 세상을 맞이하기 때문 아니었나.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합법적 폭력인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존엄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었나.

우리가 애써 지키려 했던 헌법정신은 윤석열 파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한패가 되어 노골적으로 내란진압을 방해하고, 헌법파괴 진지를 구축하려는 내란잔당세력을 척결해도 충분하지 않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으로도 충분치 않다. 아니 이 모든 일들이 목적하는 바가 학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공감과 연대 속에 각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삶에 다가가기 위함 아닌가. 진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현하는 길로 가야 한다. 경쟁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게 하지 말자. 사랑과 교육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라. 정치인과 정당은 아이들 고통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7세 고시를 배태시킨 '욕망 실현을 위해서는 폭력도 용인된다'는 논리 속에 헌법파괴의 씨가 자람을 잊지 말자.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 도내 기업들의 수출 역량 재확인했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거둔 수출 성과는 실로 주목할 만하다. 도내 15개 기업이 참가해 총 3천278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4천200만 불에 달하는 수출 상담도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전북의 수출 역량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을 앞세운 A사의 3천만 불 계약 체결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며 도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일회성 이벤트나 우연한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금부터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번 대회 성과 역시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협업해 사전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모든 수출지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전시회나 박람회에 기업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역·번역, 인증 획득 지원 등 전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R&D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A사의 사례에서 보듯, 기술 기반의 수출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뷰티 등 전북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연구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장기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생강진액을 수출한 B사가 바이어와의 1년 넘는 교류 끝에 추가 계약을 이끌어낸 사례는 시장에서 신뢰 기반의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중소기업들이 단기 수출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멘토링, 현지 시장 정보 제공, 수출보험 등의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국제 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전북이 작년에는 직접 대회를 유치하고 올해는 성공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위상을 높였듯 앞으로도 해외 주요 행사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글로벌 협업을 염두에 둔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관세 문제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과감한 정책 실험과 민관 협력체계가 절실하다. 이번 성과를 단순한 '이벤트의 결과'로 소비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발판을 미래의 도약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정책적 혜안과 실행력을 기대한다.

▲오늘의 시

## 봄비 / 곽재구

익은 꽃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며
세상 주유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

아직 덜 핀 어린 꽃들이
꽃샘추위에 툭툭 떨어져
새 삶의 거름이 되는 것도
좋은 일

꽃이 아닌 인간들이
촛불 하나씩 들고
어둠 속 길
깜박깜박 걸어가다
두 손 두 무릎
고요히 모아
세상의 메마른 봄 흙 위에
작은 무지개 깃든
눈물 떨구는 일
좋은 일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곽재구의 시는 화려한 문구로 치장하기보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지한 생의 풍경을 시 속에 생생하게 작동시킨다는 평을 받는다.

문화재열전

**대곡리 암각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암벽조각, 암각화
-지정일 - 1998년 11월 27일
-시대 - 청동기시대
-소재지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40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고창군로컬JOB센터 =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일자리 플랫폼

# 구직자도, 기업도 웃는 희망의 고창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기업 지원사업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채용연계를 넘어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기업지원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고창군로컬잡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 일자리 소식지 매달 2회 제작 및 배포
## 근로자의 날 행사 기업·근로자 유대 강화
## 면접수당·동행면접 실질적 취업 지원
## 도농 상생 실현 농가일자리지원사업
##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자·재직자 역량 강화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창군로컬JOB센터는 다가가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자리 소식지를 매달 2회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문화터미널 등 군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발로 뛰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관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 '문화의 날 행사-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를 진행해 근로자에게 간식 배달과 기업체와의 유대감을 형성, 지역 일자리 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취업 활동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수당 지원(1인 1회 5만원/최대 2회 지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동행 면접·미니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도농(都農)이 상생하는 고창, 도시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고창으로**

'농가일자리지원사업'은 도시와 관외 지역의 '유휴인력'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활용, 농촌지역의 인력난 극복 방안으로 시작됐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2022년부터 농가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4년 농가 연계 7710건을 달성했다. 관내·외 인력 연계와 간식비, 중식비, 농가촉진수당, 팜키트(농사용품) 등의 지원을 통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외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센터에서는 광주·정읍부녀회와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을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도 '업무협약(MOU)'을 진행한 광주 동구 단체(주민자치위원회)와 '도농(都農)상생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고창군의 신선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한 판로 개척과 도농(都農)교류를 통한 도시민 유휴인력 발굴 및 채용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내·외 많은 관심을 받은 고창군 농활원정대는 고창군 농가 체험 또는 봉사를 희망하는 대학교 총학생회, 봉사단체, 부녀회 등을 모집해 농번기와 같은 한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주대, 고려대, 한국외대, 전남대 등 국내 4개 대학교에서 희망하여 총 434명이 참여하여 농가 일손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재도약 기업(氣-UP) 지원사업' 본격 추진**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운영 예정으로 관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 기업(氣-UP)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기업당 최대 800만원의 지원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직무역량강화교육'에선 미취업자 대상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재직자 대상 인사·노무·회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시 1인당 최대 105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판로개척 사업'은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거래처 마케팅 및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으로 기업의 매출향상 및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채용설명회·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많은 경제 전문가들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전망을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의 고용시장 및 경제성장은 기대되는 상황으로 고창군의 기업유치(삼성전자, 지텍 등)와 고창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한 심원면 모나용평(용평리조트)의 참여 등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은 "수요자(구직자, 기업)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의 운영은 근로자의 유입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운영과 지원은 고창군로컬JOB센터(양치영 센터장) 561-5234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